조선 후기 시복 제도 연구

박 현 정[†]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A Study on Sib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Hyun-Jung Park[†]

Dept. of Fashion Business, Jeonju University

접수일(2012년 5월 8일), 수정일(2012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2012년 6월 19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ystem and arguments on the light-pink official uniforms and investigated the backgrounds and principles on the changes of the Sibok system. A study on light-pink danryeong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is a de facto study on Sibok since the name of the light-pink official uniforms (implemented at the time of King Seonjo) changed from Sangbok to Sibok. Sangbok is discussed to explain the name change from Sangbok to Sibok and distinguish their usages; in addition, Gongbok is examin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bok system.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ooks written by scholars) and related laws are used as research material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e name of the light-pink uniforms (a custom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changed from Sangbok to Sibok at the time of King Gwanghaegun and the light-pink uniform was used as a relatively light formal uniform compared to Sangbok. Sibok was added to the law *Sok-dae-jeon* at the time of King Yeongjo (because the king respected the custom) and its color rank system was denoted from light-pink and red. Sibok was revised to light-pink, blue, and green under the law *Dae-jeon-tong-pyeon* that was promulgated at time of King Jeongjo. In the development of the Sibok system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the color rank system of Gongbok was reflected. The sovereign ideas in the official uniforms in the latter part of the Joseon Dynasty (revealed in the study of the system and arguments on the light-pink official uniforms) were the thoughts that respected the custom and the principles that distinguish ranks to establish a Confucian based hierarchy.

Key words: Argument, Light-pink color, Official uniforms, Sibok, Joseon Dynasty; 담론, 담홍색, 관복, 시복, 조선

I. 서 론

본 논문은 『조선시대 관복 담홍포 담론 연구 (제1보)』의 후속연구로서 조선 후기 담홍색 관복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관복 단령 색 중, 비교적 옅은 붉은 색을 뜻하는 색명으로는 담홍색, 도홍색, 분

홍색, 토홍색, 천홍색 등이 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홍색은 임금의 곤룡포 대홍색에 견줄만한 진한 붉은 색명으로 사용하고, 홍색보다 옅은 색을 대표하는 색명으로는 영조22년 『속대전』에 규정된 당상관의 관복 담홍포 규정에 따라 ‘담홍색’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담홍색이지만 <제1보> 논의의 시작은 홍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관복제도에서 처음에 홍색으로 제정되었다가 담홍색으

[†]Corresponding author

E-mail: phjphj4@hanmail.net

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조선 태조부터 임진왜란 후 선조 때까지 공복의 색 구분 체계 및 홍색의 지위, 상복 홍색의 변화, 홍색 선호 풍속, 임진왜란 후 천홍색 상복 시행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통해 관복 담홍포 담론을 집중 재조명함으로써 담홍포 출현 및 상용의 경위를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관복 담홍포가 출현하고 또 상용하게 되기까지는 신분 구별과 홍색 선호 풍속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가 작용하였다. 기본적으로 담홍포 관복은 신분 구별 원칙을 담고 있다. 백관 상복의 홍색을 임금의 복색과 구별하기 위해 수차례 금지 조문을 내려 대홍색과 홍색을 금지하고 진한 색으로 염색하는 것을 막은 것은 신분 구별 원칙에 입각한 조치였다. 반면에 홍색을 우리 고유의 색으로 생각하여 백관 공복과 상복의 상위 색으로 규정한 것부터, 이후 상복의 홍색을 금지한 대신 도홍색과 분홍색을 제안한 것은 홍색을 선호하는 백성의 풍속을 존중하는 조치였다. 임진왜란 후 용복을 벗으며 흑단령 시행에 이은 천홍색 관복 시행 역시 우리 풍속을 존중하되 임금의 홍색과 구별하기 위한 방안이었다(Park, 2011).

본 연구에서는 담홍색 관복을 중심으로 전개된 담론 및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담홍색 관복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조 때 시행했던 천홍색 상복이 광해군 때 시복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조선 후기 담홍포 연구는 사실상 시복 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단 시복 명칭의 전환과 용도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해 상복이 함께 논의되고, 시복 제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공복이 함께 논의될 것이다. 담홍색 관복 제도 및 담론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선 후기 시복 제도 변천의 배경과 원칙을 설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홍색 및 담홍색 단령은 공복, 상복, 시복 세 가지 관복 영역에서 나타나며 단령 색에 대한 선행연구는 관복 각론 또는 궁중 행사도 복식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Moon(2004)은 왕과 왕세자를 포함한 문무백관의 상복과 시복 착용 사례를 통해 색상 변천과정을 정리했고, E. J. Lee(2005)는 단령의 색상 분화, 명칭 분화, 명칭의 반전으로 17세기까지의 홍단령과 흑단령의 변천과정, 그리고 시복과 상복의 개념 형성과정을 정리하였다. Moon(2004)과 E. J. Lee(2005)는 상복과 시복을 함께 다루며 명칭 및 제도 변천과정을 체계적으

로 정리했지만 공복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조선 후기 시복 제도에 관한 종합적 고찰이 어려웠다. 본 연구는 광해군 때 홍단령이 상복에서 시복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부터 조선 후기 담홍포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되 시복 제도 변화의 배경과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공복 및 상복 제도가 함께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조선시대 1품에서 9품까지의 관리들의 의례복 또는 업무복으로 착용되었던 단령 즉, 공복·상복·시복 제도 관련 자료이며, 단령의 색을 주요 논점으로 함에 따라 관·대·화 등은 논외로 하였다.

광해군 때 상복과 시복이 명칭이 바뀌는 사건에 대해 E. J. Lee(2005)는 광해군2년(1610) 5월, 9월, 그리고 3년(1611) 10월의 기사를 통해 명칭의 반전은 예조판서 이정구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그는 세속에서 시복을 흑단령, 상복을 홍단령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례의』의 상복을 흑단령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사를 내용 분석함으로써 당시 관복의 개념 혼동이 야기된 원인과 『오례의』 해석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Yu(1981), C. K. Lee(2005) 등의 연구에서는 『속대전』 시복 규정을 곧 공복 규정으로 보았다. 이익(1681~1763)의 『성호사설』 권15 인사문(Son & Kim, 1982)에 의하면 임진왜란 후 공복이 제한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시복이 공복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영조39년(1763) 8월 30일 공복이 정식으로 회복되는 기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복과 공복은 별개의 관복으로 보고 두 관복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법전은 시대의 변천과 역사적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새로운 변화상을 담아야 할 때 개정되어 왔다(Song, 2011). 조선 후기 법전 『속대전』의 편찬 배경을 통해 홍색의 진하고 연함의 차이로 색 등급 체계가 만들어진 시복 제도 제정의 배경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당하관 시복 색의 변경은 관복 본연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이는 『대전통편』에 반영되어 시복 제도의 부분적 개정을 가져온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시복 제도 제정 및 개정의 이유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주요 법전인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그리고 역대 문물제도를 백과사전 격으로 정리한 『증보문헌비고』의 시복 관련 관복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당시 관복 색에 관한 담론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실록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ranslated into the mod-

ern Korean], 1995)과 개인문집 연구도 병행하였다.

시복 제도에서 당하관의 홍포를 청록포로 바꾸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Kho(1990), Lee(2007) 등의 선행연구에서 영조33년 12월 16일 기록에 근거하여 군신이 같은 복색임을 비웃는 중국의 비난과 사치풍속 금지의 두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임금 스스로 사치금지를 실천하며 서민군주를 지향한 것은 영조의 주요 통치 철학 중 하나였으며(Shin, 2010), 군신 간 복색 구별설은 선조 때 천홍색 관복 시행 때부터 제기된 것으로 조선 후기 시복 제도 부분적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시복 제도의 제정 및 개정 등 전반적인 변천과정에 풍속의 존중과 공복 제도의 반영이라는 배경과 원칙이 작용하였음을 밝힌다. 오랜 풍속을 존중하여 법전에 반영하는 민본주의, 그리고 공복 색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등차를 정하는 관복 본연의 기능을 부여하고 상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두 가지 양립한 통치 철학이 조선 후기 시복 제도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

III. 답홍포의 제도화 과정

1. 시복으로의 전환과 의례 경중에 따른 시행

임진왜란이 끝난 후 융복을 벗고 관복으로 복귀하면서 선조32년(1599) 흑단령 시복 시행에 이어 선조34년(1601) 천홍색 홍단령 상복이 시행된 바 있다. 광해군 때에 이르면 홍단령을 상복, 흑단령을 시복이라고 해오던 관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흑단령 상복, 홍단령 시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립된다. 광해군2년 5월, 9월, 3년 10월 세 번의 사건을 통해 상복과 시복의 명칭과 착용 의례에 대한 논의 내용을 살펴본다.

첫 번째 사건은 광해군2년(1610) 성균관 문묘의 신위에 참배하는 알성 때의 유생과 중국 사신 올 때의 백관의 상복을 흑단령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광해군2년(1610) 5월 19일 예조에서 “『오례의』의 흑단령은 상복이라고도 하고 시복이라고도 하는데, 비록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으나 알성할 때에 이른바 유생들의 상복과 중국 사신이 올 때의 이른바 백관의 상복은 분명 흑단령입니다. 감히 아쉽니다”고 하였다. 『오례의』의 흑단령을 상복이라고도 하고 시복이라고도 한다는 것은 『오례의』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오례의』의 흑단령을 광해군 당시에 상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복으로 부르기도 했다는 뜻이다. 『오례의』에는 홍례 때의 흑단령을

제외하고는 의례용 관복을 명시할 때 구체적인 색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알성시 유생들의 상복과 사신 맞을 때 백관의 상복을 흑단령으로 보고하면서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오례의』 상복 색 해석에 대한 혼동에서 야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광해군2년(1610) 전시의에 독권관과 대독관의 상복을 흑단령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광해군2년(1610) 9월 8일에는 예조에서 “『오례의』에 ‘전시(殿試)를 행할 때 독권관과 대독관은 모두 상복을 입는다.’고 하였기에 이에 의거해서 의주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로는 홍단령 차림을 상복이라 하고 흑단령 차림을 시복이라고 합니다만 『오례의』에 기재된 것을 보면 흑단령 차림을 상복으로 삼은 곳이 매우 많은데, 가령 칙사를 영접할 때의 의례든가 조참·상참 등의 의례 그리고 배표할 때 입는 사자의 복색 모두를 상복으로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로써 볼 때 이번에 알성하고 인재를 뽑을 때 독권관 이하의 복색을 상복으로 마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흑단령 차림으로 입시하는 셈이 됩니다.”하여 임금이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오례의』에 상복이라고 되어 있는 전시의의 독권관과 대독관의 관복 색에 대한 논의로 당시 홍단령을 상복, 흑단령을 시복이라고 하던 일반적 인식에 따라 상복을 홍단령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듯하다. 한편 상복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 다른 의례인 칙사 영접, 조참·상참 의례, 배표할 때 사자의 복색 등의 경우에는 흑단령임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시의 독권관과 대독관 상복도 이에 준하여 흑단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사건은 광해군3년(1611) 왕세자 친영시 배종하는 2품 이상 관리의 상복을 흑단령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광해군3년(1611) 10월 23일에는 왕세자 친영시 배종하는 관리들이 착용할 상복의 색에 관해 예조와 사헌부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흑단령으로 결정되기까지 세 건의 기사가 연속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기사는 왕세자 친영할 때 세자를 배종할 2품 이상 관리의 관복으로 예조에서 이미 올린 상복 착용안에 대해 사헌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즉 사헌부에서는 “왕세자가 면복하고 친영하는 것은 막중한 예입니다. 배종하는 궁관은 공복까지 갖추면서 동서반의 2품 이상이 상복으로 종행하는 것은 비록 예문에 실려 있다 할지라도 정례로 미루어 볼 때 너무 간소한 것 같습니다. 예관에게 다시 수의하여 처치하게 하소서.”라고 하며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안을 올리게 하였다. 두 번째

기사는 사헌부의 이의 제기에 대한 예조의 답변으로 “사헌부가 아뢰어 전교한데 대한 것입니다. 『오례의』의 친영조에 ‘2품 이상은 상복으로 종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례의』에서 말한 상복이란 바로 흑단령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관이 감히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서 예문대로 마련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즉 사헌부에서는 당시의 인식대로 상복을 흑단령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조의 상복 착용안에 대해 너무 간소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예조에서는 흑단령으로 생각하고 상복을 시행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사에서는 사헌부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복색이 黑衣를 시복이라 하고 紅衣를 상복이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생각으로는, 평상시 입는 紅衣로 성례를 배종하는 것이 미안할 것 같아 다시 수의하도록 아뢰었던 것입니다.”라며 스스로 죄를 묻는다. 결국 왕세자 친영 때 배종하는 2품 이상 관리의 상복은 흑단령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상의 광해군2년 5월, 9월, 3년 10월 세 번의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모두 흑단령을 시행한 내용이지만 공통적으로 『오례의』의 상복이 흑단령인지 흑단령인지에 대한 혼동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흑단령을 시복, 흑단령을 상복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예조에서는 『오례의』 상복이 흑단령임이 확실한 다른 의례를 참고하여 해석을 내리게 된다. 결국 이 사건들을 계기로 흑단령의 명칭은 시복에서 상복으로, 흑단령의 명칭은 상복에서 시복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한편 광해군3년 10월 사헌부가 이의제기를 하게 된 내면에는 흑단령은 흑단령에 비해 간소한 용도로 착용된다는 착용 의례 경중의 차이 인식이 담겨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Moon(2004)의 영조 대부터 흑단령을 상복으로 알고 가벼운 일에는 흑단령인 시복을 입음으로서 상복보다 격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상복과 시복의 착용 의례 경중을 구별하고 시복을 상복보다 경한 의례복으로 시행하게 되는 시기를 광해군 대로 소급할 수 있게 한다. 이때의 흑단령이란 선조 때 시행된 친홍색 상복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담홍색이 원칙이나 실제로 담홍색이 유지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상복과 시복의 색 개념이 바뀐 후 100여년이 지난 숙종32년(1706) 7월 기사와 영조17년(1741) 4월의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 총 세 번의 사건을 통해 상복과 시복이 각각 새로운 개념에 따라 시행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숙종32년(1706) 임금이 친림하는 진연에 신하의 관복을 상복 흑단령으로 시행한 내용이다. 숙종32년(1706) 7월 24일에 진연할 때 참여하는 신하들이 착용할 관복에 대해 “진연할 때에 입찰하는 여러 신하들의 복색이 정식으로 된 일이 없었습니다. 『오례의』에는 ‘정월 초하루와 동짓날 모이는 의식에는 상복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니, 상복은 곧 흑단령입니다. 외의(外議)에서는 흑 말하기를, ‘서충대 도본에 의하여 시복으로 예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주상께서 이미 인정전에 나아가시면 마땅히 흑단령으로 예를 행한다.’고 하였으니, 친림하신 법전에서 여러 신하들이 헌수하는 것은 사체의 중요함이 서충대에서 일시에 연례를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어떤 복색으로 법을 정하여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즉 진연에 신하의 관복이 시복이라는 의견도 있고, 상복이라는 의견도 있으므로 임금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다. 이에 임금은 “법전에 친림하는 것은 사체가 자별하니, 마땅히 시복을 사용할 수는 없다. 흑단령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논의의 주제는 더 이상 상복이 흑단령이나 흑단령이냐의 문제가 아닌 흑단령 시복을 입을 것인가 흑단령 상복을 입을 것인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임금이 친림하는 구별되는 진연이니 흑단령 시복을 입을 수 없고 흑단령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상복 흑단령을 시복 흑단령보다 격이 높은 관복으로 시행하는 상복과 시복 간의 착용 의례 경중의 차이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영조17년(1741) 4월 8일에는 유생의 거제(居齋)와 부거(赴學)할 때 입는 흑단령과 삼창·전강 때 신하들이 입는 흑단령에 관한 두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기사는 관학 유생의 복색에 관한 것으로 거제와 부거할 때 그전대로 시복 흑단령을 입게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에 관학 유생이 거제할 때와 부거할 때 모두 흑단령을 입게 하였는데 유생들이 불편하게 여겨 번번이 『시경』 정풍의 ‘푸르고 푸른 그대 옷깃이여[靑靑子衿]’라는 글을 가지고 청색 옷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의정 김재로는 “무릇 복색은 청색과 흑색을 함께 쓰지만, 흑단령은 흑단령에 비교하여 더 중하므로, 중한 곳에는 흑단령을 입고 경한 곳에는 흑단령을 입으니, 조신뿐만 아니라 유사도 그렇게 하였습시다. 그래서 성묘에 들어갈 때에는 청의를 입고 식당(食堂) 및 재(齋)에 모일 때에는 홍의를 입었으니, 의도한 바가 대체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조종조에서 행

하던 것이므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을 듯합니다”고 하며 성묘에 들어갈 때는 흑단령을 입지만, 거제와 부거에는 홍단령을 입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 외에 명나라 태학생에 따라 난삼과 복두를 입게 하자는 부호군 윤봉구의 의견도 있었지만 임금의 김재로의 의견에 따라 유생의 거제와 부거에는 홍단령을 입도록 하였다. 김재로 역시 흑단령과 홍단령은 의례의 경중에 따라 착용되어야 하고 흑단령이 홍단령에 비해 중한 즉 격식이 높은 옷임을 설명하며 이는 조신과 유사가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즉 숙종32년(1706) 임금이 친림하는 진연에는 신하의 관복으로 흑단령 상복이 착용된 반면 영조17년(1741) 상대적으로 경한 유생의 거제와 부거에는 홍단령 시복이 착용되었다.

영조17년(1741) 4월 8일 두 번째 기사는 조정 신하의 복색에 관한 것으로 상참·전강 때 흑단령을 착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영의정 김재로는 “성상께서 곤복을 입으시면 아래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흑단령을 입는 것이 사체에 당연합니다. 상참 및 전강에 모두 흑단령을 착용한다면 주장 또한 법강인데, 성상께서 곤복을 입기 때문에 흑단령을 착용한다는 것이 『실록』과 홍문관의 고사에 기재되어 있으니, 지금 홍단령으로 고치는 것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조정의 신하가 임금의 옷을 따르는 것은 옳다”며 김재로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즉 숙종32년(1706) 임금이 친림하는 진연에 신하의 관복이 흑단령 상복이어야 했던 것처럼 임금이 곤복을 입고 친림하는 상참 및 전강에 신하는 흑단령 상복을 입게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광해군 때 흑단령은 상복으로, 홍단령은 시복으로 명칭이 전환됨과 동시에 각각 착용 의례의 경중이 구분되어 숙종과 영조 대를 거치며 그에 따라 시행되었다. 즉 상복 흑단령은 알성시 유생, 중국 사신 맞이하는 백관, 전시의에 독권관과 대독관, 칙사 영접, 조참·상참, 배표할 때, 세자 친영 때 동서반 2품 이상이 종행할 때, 임금이 친림하는 진연, 성묘할 때 등에 착용된 반면 시복 홍단령은 서충대에서 일시에 연례할 때와 유생의 거제와 부거할 때 등 비교적 경한 의례에 착용되었다.

2. 당상관 시복으로 제도화 된 답홍포

시복으로 바뀐 홍단령은 조선 후기에 편찬되는 법전에 제도화 되는데 『경국대전』을 이은 조선 두 번째 법전으로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새로운 관복 제도로

추가 제정되고, 정조 때 편찬된 조선 세 번째 법전 『대전통편』에 일부 내용이 개정된다.

『속대전』이 편찬되기 2년 전인 영조20년(1744) 8월 5일에 영조는 찬집청에 하교하여 『속대전』에 기록될 관복 복색의 제정 의도와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한다. “문장은 위·아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2품 이상은 비의(緋衣)를 입고 당상관 정3품은 홍의(紅衣)를 입으며 종3품 이하는 청포(靑袍)를 입고 7품 이하는 녹포(綠袍)를 입는데, 비록 그 옛날 제도를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대전』을 속성할 적에 이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후세 왕들을 기다려 이를 참조하고 취사 선택하여서 당상관 이상은 비의(緋衣)를, 당하관 이하는 홍포(紅袍)를 입게 하려는 것이다. 조복과 제복은 본 『대전』의 뜻과 같지만, 마땅히 『속대전』 가운데에 추가하여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어릴 때에 보니, 흑단령 흉배는 문관의 당상관 이상이 학이고 당상관 이하는 백한이었는데, 지금은 당상관과 당하관의 제도가 뒤섞였으니, 이것은 습속의 잘못된 것이다. 만약 옛날 전장에 따라서 이것을 바로 잡는다면 등급이 너무 많아져서 더욱 고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속대전』 가운데에 이것에 의하여 추가하여 기록하고, 그것을 조선으로 하여금 조용하게 바로 잡도록 하라.” 영조의 하교에는 조복·제복과 비-홍의 색 체계를 갖는 관복, 그리고 흑단령 관복의 흉배가 언급되었다. 2년 후인 영조22년(1746)에 완성된 『속대전』의 관복 제도는 다음과 같다.

『續大典』卷3 禮典 儀章, “朝服·祭服今同大典 大典堂上官以上胸背與今判異 堂下三品至參外官則只有靑綠色公服而無常服與胸背 今難復古. ○堂上三品以上, 淡紅袍, 大·小朝儀, 玄綠色紗·緞, 胸背, 雲鶴 ○武臣胸背, 同大典. ○堂下三品以下, 紅袍, 大·小朝儀, 玄綠色紵·絹, 胸背, 白鷗 ○武臣胸背, 與大典武臣堂上同”

『속대전』의 구성은 특이하여 『경국대전』에 실린 원문을 신지 않고 『경국대전』 이후로 변화가 있는 내용만 실었다(Jeong, 2010). 관복제도 역시 이 원칙에 따라 조복과 제복은 다시 기록하지 않았으며 『경국대전』에는 없었던 답홍-홍의 색 체계를 갖는 관복과 현녹색 관복 제도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현녹색 관복은 영조가 영조20년(1744) 8월 5일 ‘흑단령’이라고 언급하며 흉배의 잘못된 예를 지적한 관복으로 상복을 말한다. 『경국대전』에 상복이 제정되었으며 흉배 제도는 단종

2년(1454) 12월 10일에 시행되었다. 광해군 때 이미 상복이 흑단령으로 바뀌었으므로 영조가 어릴 때 본 것은 흑단령 상복에 흉배가 부착된 것이었다. 문관 당상관과 당하관 흉배 문양에 혼동이 있음을 지적하며 바로 잡도록 한 것이다. 이 『속대전』의 흉배 규정은 영조 21년(1745) 5월 26일 영의정 김재로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듬해 법전에 기록된 것으로 당상3품 이상은 현록색 사·단에 문관은 운학 흉배이고 무신은 『경국대전』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1~2품은 호표(虎豹) 흉배이다. 당하3품 이하의 현록색 저·견에 문관은 백한 흉배이며 무신은 『경국대전』 무신 당상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웅비(熊羆) 흉배이다.

다음은 담홍·홍의 색 체계를 갖는 관복으로 그 내용은 당상3품 이상은 담홍포, 당하3품 이하의 홍포를 입는 시복이다. 『속대전』 상에는 이 관복이 상복인지 시복인지 명칭이 등장하지 않지만 다음에 논의될 영조33년 기록을 통해 시복이라는 명칭이 확인된다.

영조는 『속대전』 편찬 11년 후 당하관 시복의 홍색을 청록색으로 바꾸도록 하였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영조33년(1757) 12월 16일 “조신 중에 당하관의 시복은 홍포를 착용하지 말고 구제대로 청록색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영조39년(1763) 11월 9일에도 “당하관의 천홍포(茜紅袍; 진한 홍색)도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속습이 이미 고질되어서 한 가지도 실효가 없었음은 물론 법령만 부질없이 어지러이 고치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조5년(1781)에 쓰여진 『추관지』 제4편 장금부 신장 사치(Son & Kim, 1982)에도 녹포로 바꿈으로서 홍포 제도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시체(時體) 즉 풍속이라고 하였다. 당하관의 홍색을 청록색으로 바꾼 개정이 쉽게 실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정조는 당하관 시복의 홍포 규정을 청록포로 바꾸자 했던 영조의 뜻을 받들어 새로 편찬되는 법전에 반영한다. 정조9년(1785)에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후에 간행된 법령집을 통합하여 편찬한 법전 『대전통편』에 개정된 관복 제도는 다음과 같다.

『大典通編』卷3禮典 儀章 “《原》○一品 公服, 紅袍. 常服, 紗·羅·綾·段, 胸背, 大君麒麟, 王子君白澤, 文官孔雀, 武官虎豹. ○二品 公服 並同一品. 常服, 紗·羅·綾·段, 胸背, 文官雲鴈 大司憲獬豸 武官虎豹. ○三品 公服, 正, 紅袍, 從, 青袍. 常服, 堂上官, 紗·羅·綾·

段, 胸背, 文官白鵬 武官熊羆. ○四品 公服, 青袍. ○五六品 公服, 青袍. ○七品至九品 公服, 綠袍. 《續》○堂上三品以上, 淡紅袍, 大·小朝儀, 玄綠色紗·緞, 胸背, 雲鶴 ○武臣胸背, 同原典. ○堂下三品以下, 紅袍, 大·小朝儀, 玄綠色紵·絹, 胸背, 白鵬 ○武臣胸背, 與原典 武臣堂上同 《增》青綠袍, 從原典復舊, 紅袍 廢.

『대전통편』에는 원전인 『경국대전』 내용이 ‘원’ 표시로 기록되어 있고, 개정본인 『속대전』의 내용이 ‘속’ 표시로 추가되어 있고, 다시 개정한 내용이 ‘증’이라는 표시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조 때 예서나 법전을 편찬할 때 사용한 기록 방식으로서 이전에 편찬된 내용과 새로 보완된 내용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Song, 2011). 『경국대전』의 공복·상복 제도, 『속대전』의 상복·시복 제도를 앞에 기록한 후 마지막으로 ‘증’ 표시와 함께 시복의 당하3품 이하 홍포를 폐지하고 ‘원전’ 즉 『경국대전』의 옛 제도를 따라 청록포로 복귀한다고 하였다. 실록 영조20년(1744) 8월 5일 기사 말미에 “후일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당하관이 마침내 綠袍를 입던 옛날의 제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기록은 후대 사관에 의한 부가 설명으로 바로 이 『대전통편』의 개정을 가리킨 것이다.

『속대전』에 당상관 시복으로 제도화된 담홍포는 고종 때까지 착용되었으나 의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고 시복과 상복 모두 흑단령으로 개정된다. 갑신년인 고종21년(1884) 윤5월 24일 “관복으로 오직 흑단령만을 쓰는 것은 바로 옛날의 제도로서 일이 아주 간편한데, 당상관의 시복 홍단령에 대해서는 『대전통편』의 원전의 예에 따라 착용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부터 무릇 조적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늘 흑단령을 착용하고, 매양 크고 작은 조의의 진현과 대궐 안팎의 공고 때에는 흉배를 더 착용하여 문관과 무관의 품계를 구별하도록 하고, 단령의 제도에서 반령착수도 한결같이 국조의 제양을 따르도록 하라.”하였다. 다음날인 윤5월 25일에는 기존에 입어오던 홍단령을 검게 물들여 착용하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고종은 시복 홍단령 폐지의 근거로 『경국대전』과 예종1년(1469)의 홍색 표의 금지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통편』의 ‘원전’이란 『경국대전』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상복은 공복과 같이 홍포, 청포, 녹포의 세 단계 색 구분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경국대전』에는 “대소 인원에게 홍색, 회색, 백색 표의를 금지”하였고 예종1년(1469) 7월 9일에도 “대소 인민의 홍색

표의와 홍색 속옷을 금지하되 공복, 조복, 제복과 기생, 공인의 관대 홍색은 예전대로 하게”하였다. 이는 조복, 제복과 공복 당상관의 홍색은 제도대로 시행하되 그 외의 홍색은 금지한 것으로 상복 홍색은 공복과 같은 진한 붉은 색으로 입을 수 없게 한 것이다(Park, 2011). 한편 공복의 홍포 제도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비록 관복의 종류는 다르다 할지라도 홍단령은 존재하였다. 따라서 대신들은 고종의 홍포 폐지의 근거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여 고종21년(1884) 윤5월 27일 다음과 같이 의복 제도에 반대한 차자를 올린다. “성상의 하교 중에 ‘홍단령을 『대전통편』의 원전의 예에 따라 착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신들은 어리석어 원전에 착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한 것은 『경국대전』에 구체적으로 상복 홍포를 금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또한 공복의 홍포 제도가 존재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 후 담홍색 상복이 보편화 되고 선조 때는 천홍색 즉 담홍색을 시행하였음도 의식하였을 것이다.

이제 고종은 선조 때의 흑단령 시행과 의례의 경중을 들어 경한 것을 버리고 중한 것을 따르려는 의도라고 설득한다. “상복 흑단령은 바로 선조조 때에 전교하여 규례로 정해서 행한 것이니, 어찌 옛 제도가 아니겠는가? 조참과 상참 등의 때에 반드시 검은 옷을 착용하도록 한 것은 대개 검은 색을 중요하게 여겨서이니, 이제 가벼운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을 따르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홍색과 녹색의 공복은 본래 상복과 같지 않으므로 공복에는 복두와 야대를 착용하고, 상복에는 사모와 품대를 착용하는 것이니 합하여 논할 수 없을 듯하다”고 하며 공복과 상복은 관과 대가 서로 달라 같은 옷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복의 홍포를 연관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록 갑신년 의제 개혁은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중단되지만 10년 후 고종31년(1894) 갑오 의제 개혁과 고종32년(1895) 을미 의제 개혁을 통해 대례복과 소례복에 흑단령이 시행됨으로써 관복 홍단령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조22년(1746) 『속대전』에는 당상3품 이상은 담홍포, 당하3품 이하는 홍포라는 시복 규정이 추가된다. 그러나 영조33년(1757) 당하3품 이하의 홍포를 청록포로 다시 바꾸라는 영이 내려졌으며 이는 정조9년(1785)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시복 당하관의 홍포를 폐지하고 청록색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도화되었다. 당하관의 홍포는 청록색으로 개정된 반면 당

상관의 담홍포는 고종의 의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IV. 조선 후기 시복 제도 변천의 배경과 원칙

조선 후기 시복 제도 변천의 배경과 원칙으로 첫째는 풍속의 존중, 둘째는 공복 제도의 반영이었다. 동일 계통의 색을 진하고 연합의 차이로 구분하여 새로운 색 체계를 만든 『속대전』의 시복 제도는 오랜 시간동안 착용되어 온 홍단령 풍속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며, 『속대전』에 담홍-홍의 두 단계 색 체계 구상과 『대전통편』에 홍-청-록의 세 단계 색 체계로의 개정 작업에는 모두 공복 제도 원칙이 반영되었다.

1. 풍속의 존중

조선 후기 새로 편찬된 법전 『속대전』에 시복 제도를 추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속대전』 편찬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최초의 법전 『경국대전』 시행 이후 계속해서 법령이 만들어졌으며 법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교와 조례가 방대하여 해석과 시행에 곤란이 야기되어 새로운 법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영조20년(1744) 8월 5일에 “만약 『경국대전』에 따르면 등급이 많으므로, 간략함에 따라 당상관 이상은 학(鶴), 당하관은 한(鴈)으로 할 것이다. 이는 형식이 지나치고 예가 번거로운 때에 가까운 예를 따르고 간략함을 따르는 뜻이다.”라고 한 것은 상복 홍배의 문양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서 영조10년(1734) 12월 6일 무신이 학 홍배를 착용한 일이 있어 신칙하게 한 이후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등급이 많은’ 『경국대전』의 복잡한 홍배 제도를 앞으로 편찬될 『속대전』에서는 간단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속대전』의 구성은 특이하여 『경국대전』에 실린 전 원문을 신지 않고 『경국대전』 이후로 변화가 있는 내용만 실었음은 앞에서 언급하였다. 『속대전』 권3 예전 의장 서문에 ‘조복·제복은 지금도 대전과 같다’고 한 내용에서 ‘대전’은 『경국대전』을 말하는 것으로 조복과 제복 제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록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속대전』은 이전 법전과 법령들의 내용을 취사 선택하고 당시의 관행을 참작하여 편찬된 법전으로 『경국대전』에는 없는 항목이 많다. 이러한 편찬 원리로 인해 관복 제도에 있어서도 『경국대전』

과 구별되는 변화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데 시복과 상복이 바로 그 변화의 내용이다.

조선 후기 시복 흉단령은 홍색 선호 풍속에 따른 담홍색 관복 보편화 현상의 연장선상에 나타난 결과이다. 『경국대전』에는 상복 색 규정과 함께 홍색 금지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성종 때 이미 상복으로 토홍색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홍화 염색은 오랜 풍속이었는데 이는 조선에서 홍화가 많이 재배되었고 염색 방법이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한 염색이었다. 세종이 홍색을 금지한 대신 도홍색과 분홍색을 제한한 것, 성종이 목홍색을 상용하게 한 것 등은 홍색을 선호하는 백성의 풍속을 존중하는 조치였다. 성종 때 토홍색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임진왜란 이전에 담홍색이 상복 색으로 보편적으로 상용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용복을 벗고 다시 관복을 입게 되면서 선조32년(1599) 흉단령 시복을 먼저 시행한데 이어 선조34년(1601) 천홍색 즉 담홍색 상복을 시행하였다. 선조34년(1601) 6월의 천홍색 관련 논의는 중국 제도에 따라 흉단령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과 홍색이 우리의 옛 풍속이니 홍색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었고 임금이 우리 풍속을 존중하는 입장에 동의하여 구제를 회복해야 한다며 흉단령 시행을 단행하되 임금의 홍색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 천홍색으로 정한 것이다(Park, 2011). 광해군 때 상복에서 시복으로 명칭이 바뀐 흉단령은 용도에 있어 상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의례용 관복으로 오랫동안 착용되어 왔다.

따라서 『속대전』 시복 제도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착용되어 온 홍색 계통 관복을 오랜 풍속으로 보고 이를 정식으로 법전에 추가한 것이다. 다만 홍색을 담홍색과 홍색으로 구분하여 당상관과 당하관을 구분할 수 있는 색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속대전』 편찬 3년 후인 영조25년(1749) 10월 5일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신의 복색을 2품 이상은 구제에 담홍을 쓰게 한 것은 지위가 높고 임금과 가까이 있어서 혐의하여 복색을 붉게 아니했던 것이며, 당하관의 홍은 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선조34년(1601) 천홍색 상복을 시행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색이 홍색으로 진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당하관의 홍색에는 ‘이미 입은 지가 오래되었다’며 오랫동안 착용해 온 홍색 풍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풍속 존중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다만 임금과 항상 가까이 있어 구분이 필요한 당상관에게는 홍색보다 옅은 담홍색을 착용하게 한

것이다. 단 『속대전』에는 당상3품 이상이었던 담홍포 착용신분을 영조25년에는 2품 이상이라고 하였다. 또 다시 색이 진해져 군신의 복색이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전에 제도화한 것은 오랜 풍속을 존중한 민본주의 통치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홍색은 염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속대전』 편찬 11년 후인 영조33년(1757) 12월 16일에 당하관의 시복을 홍포에서 청록색으로 개정하도록 하면서도 당상관의 담홍색은 여전히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증보문헌비고』에는 영조20년(1744) 8월 5일 『속대전』 관복 제도 편찬 의도를 전교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문장은 상하를 표시하는 바인데, 이제 『대전』을 찬집할 때에 구전을 들어서 쓰는 것이 마땅하나, 습속이 이미 오래되어 일시에 개혁하자면 구애됨이 있고, 눈에 해괴한 폐단이 없지 아니하다.” 여기서 『대전』이란 『속대전』을 말하며 ‘구전’은 『경국대전』을 말하므로 “구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나 습속이 이미 오래되어 일시에 개혁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것은 흉단령 관복을 법전에 정식으로 제도화하게 된 배경이 오랜 풍속을 반영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설명이다.

2. 공복 제도의 반영

조선 후기 법제화된 시복 제도에는 『경국대전』의 공복 제도의 원칙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이는 『속대전』 시복 제도를 구상하는 데서부터 발견된다. 『속대전』에 추가된 시복 제도의 내용은 당상3품 이상은 담홍포, 당하3품 이하는 홍포의 시복이다. 영조20년(1744) 8월 5일 영조가 『속대전』에 기록될 관복 제도를 하교한 내용에 의하면 이 시복 제도를 만들기 위해 참고했다고 밝힌 옛 제도는 비, 홍, 청, 녹색의 네 단계이며, “옛날 제도는 회복할 수 없더라도 이를 참조하고 취사 선택하여서 당상관 이상은 비의(緋衣)를, 당하관 이하는 홍포(紅袍)를 입게”한다고 했다. 이는 『경국대전』의 공복 색 체계인 홍, 청, 녹색에서 홍색을 다시 비색과 홍색, 두 단계로 나누어 네 단계로 본 후, 그 중 상위 두 단계인 비색과 홍색만을 뽑아 당상관은 담홍포, 당하관은 홍포라는 새로운 색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비색’은 주로 문어적으로 사용된 색 명칭(Nam et al., 2005)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당상관 이상은 비의로 하겠다’고 한 후 결국 법전에는 ‘담홍포’로 정한 것은 실제로

상용되는 색 명칭을 제도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 때 새롭게 편찬된 법전 『대전통편』을 통해 시복 제도에 공복의 색 체계가 다시 한번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전통편』에는 시복 규정의 일부 즉 당하관의 시복 색이 홍색에서 청록색으로 개정된다. 영조33년(1757) 12월 16일 “조신 중에 당하관의 시복은 홍포를 착용하지 말고 구제대로 청록색을 착용하라.(중략) 당하 조관의 구제는 녹포를 착용하였는데, 임진왜란·병자호란 뒤에 홍포로 변하였으니, 화인들은 군신이 같은 복장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풍속이 이를 숭상하였고 또 선홍색을 귀히 여겼으니 사치스러움이 점차 번지게 되었다.”고 한 것과 같이 영조는 군신의 복색이 같음과 홍색을 선호하여 사치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당하관 시복 개정의 근거는 ‘구제’임을 강조하며 홍포였던 당하관의 시복을 청록색으로 바꾸게 하였다. 이로 인해 『대전통편』에는 당하관 시복 홍포 규정이 폐지되고 청록포로 개정된다. 그런데 『대전통편』의 “원전에 따라 청록포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주목하면, 원전의 청록포는 『경국대전』공복의 청포와 녹포를 가리킨다. 따라서 『대전통편』에 완성된 시복 제도에는 『경국대전』의 공복 제도가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에도 『경국대전』공복의 색 체계가 시복 제도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조명한 바 있다. 정조5년(1781)에 역대 전장, 교령 및 명신들의 사적을 수록하여 편찬된 『추관지』 제4편 장금부 신장 사치(Son & Kim, 1982) “영조34년(중략) 지금 당하관이 착용하는 청록포는 일체 『경국대전』을 따르게 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려실기술』 별집 권13 정교전고 관복(Son & Kim, 1982)에 “정축년(1757)에 명하여 당하관의 청록색 포 규정을 『경국대전』에 있는 그대로 하게 하였다”고 한 것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한편 우리나라 상고시대부터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문물 제도를 분류 정리한 『증보문헌비고』의 시복 제도를 살펴보면 그 색 체계가 『경국대전』의 공복 제도의 색 체계와 동일하다. 영조 때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새로운 제도를 증보하여 정조 때 『증보동국문헌비고』를 편찬했지만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결국 1908년에 완성 간행된 것이 『증보문헌비고』이다. 『증보문헌비고』의 시복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역) 『增補文獻備考』第79卷 禮考26 章服 신복(臣

服) 조선(朝鮮) “시복(時服)은 1품에서 3품까지는 홍포(紅袍), 4품에서 5, 6품까지는 청포(靑袍), 7품 이하는 녹포(綠袍)이다. [《속대전》에는, “당상(堂上) 3품 이상은 담홍포(淡紅袍)이고, 당하3품 이하는 홍포이다.”라고 하였다.]”

- 국역 증보문헌비고 [Jeungbo Munheon-bigo]. (2000) -

이에 따르면 “시복은 1품에서 3품까지는 홍포, 4품에서 5, 6품까지는 청포, 7품 이하는 녹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전통편』에는 “홍포를 청록포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만 『증보문헌비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청포 착용자와 녹포 착용자를 품급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경국대전』의 공복 색 규정과 동일하다.

한편 당하관의 시복에 공복 색 체계를 적용하여 홍포에서 청록포로 바꾼 원칙은 당하관의 다른 관복에 적용되기도 하였다. 순조34년(1834) 5월 16일 능에 거동할 때 당하3품 이하의 홍철릭을 홍포 변통 예에 따라 청색 철릭으로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능에 거동할 때 문관·음관·무관의 당하관은 붉은 철릭도 홍포로 변통하는 예에 의하여 지금부터는 청저(靑苧)의 철릭으로 개용하되, 경외의 관직을 논하지 말고 홍색 철릭은 하나 같이 모두 금지할 것”이라 하였다. 이는 품계에 따른 색 체계가 하나의 관복에 규정된 후 해당 품급의 다른 관복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V. 결 론

조선시대 후반기 담홍포가 상복에서 시복으로 명칭이 전환되는 사건부터 법전에 제도로 추가되고 개정되는 시복 제도 변천 과정을 통해 각 변화의 축이 되었던 담론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관복 담홍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시복 제도 형성의 배경과 원칙을 밝혀냄으로써 조선시대 관복 제도에 내재된 통치철학이 후기 시복 제도에 구현되어 가는 양상을 확인하게 하였다.

조선 후기 담홍색 관복 제도 변천과정은 시복으로의 전환과 의례 경중에 따른 시행, 그리고 당상관 시복으로 제도화 된 담홍포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광해군 때 흑단령은 상복으로, 홍단령은 시복으로 명칭이 전환됨과 동시에 착용 의례의 경중이 구분되어 숙종과 영조 대를 거치며 각각 의례의 경중에 따라 시행되었다. 즉 상복 흑단령은 알성시 유생, 중국 사신 맞이하

는 백관, 전시의에 독권관과 대독관, 칙사 영접, 조참·상참, 배포할 때, 세자 친영 때 동서반 2품 이상이 종행할 때, 임금이 친림하는 진연, 성묘할 때 등에 착용된 반면 시복 홍단령은 서충대에서 일시에 연례할 때와 유생의 거재와 부거할 때 등 비교적 경한 의례에 착용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상복과 시복의 착용 의례 경중을 구별하고 시복을 상복보다 경한 의례복으로 시행하게 되는 시기를 광해군 대로 소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시복이 법전에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먼저 영조 22년(1746) 때 『속대전』에 당상3품 이상은 담홍포, 당하3품 이하의 홍포라는 규정이 추가된다. 그러나 영조 33년(1757) 당하3품 이하의 홍포를 청록포로 바꾸라는 영이 내려졌으며 이는 정조9년(1785)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반영되어 시복 당하관의 홍포를 청록색으로 개정하고 홍포는 폐지되었다. 당하관의 홍포는 후에 청록색으로 개정된 반면 당상관의 담홍포는 고종21년(1884) 의제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될 때까지 존속되었다.

담홍포 제도 및 담론 분석을 통해 확인된 조선 관복 제도에 내재된 통치철학이 후기 시복 제도에 구현되어 가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복 제도에 공복 제도 원칙을 적용한 것은 등차를 구분하는 관복 분연의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사치를 금지하고 상하 신분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통치철학의 실현이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조는 『속대전』에 추가할 시복 제도를 구상하는 단계부터 『경국대전』의 공복 제도를 참고하였으며, 정조의 『대전통편』에서 당하3품 이하의 홍포를 청록포로 바꾼 것은 『경국대전』의 공복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었다. 『속대전』 편찬 의도에서 영조는 ‘관복은 상하를 구별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당상관의 시복 색을 임금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 담홍색으로 하고, 다시 당하관 시복 색을 청록색으로 개정한 것은 모두 상하 신분과 품급의 구별이라는 관복 분연의 기능이 시복 제도 형성의 원칙으로 사용된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로 『속대전』의 시복 제도 추가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착용되어 온 홍색 관복을 정식으로 법전에 제도화 한 것으로 풍속을 존중하는 조선 임금의 민본주의 통치철학의 실현이었다. 조선시대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성리학을 국교로 세우고 정치를 운영했다. 따라서 겉으로 본다면 조선시대는 중국화가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진 시대로 보이기 쉽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다(Han, 2009). 조선시대 관복 제도 역시 초기에는 중국 제도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고 또 선조 때

홍단령 논의의 예처럼 중국과 같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천홍색 홍단령을 시행한 것은 풍속을 존중한 임금의 태도에 기인한다. 이는 중종23년(1528) “풍습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는 것이다”며 법령으로 풍속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조선 후기에 와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풍속을 법제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References

- Han, Y. W. (2009).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eonbi spirits and its future-Life, peace, public good, people, and love of country. *Han'guk [Korean Culture]*, 45, 99-132.
- Jeong, H. H. (2010). Theory of the compilation of the Sok-taejŏn during the reign of King Yŏngjo and its characteristics. *Han'guk [Korean Culture]*, 50, 173-200.
- Koh, K. L. (1990). *한국의 관복 [The official uniforms of Korea]: A study on Bokdu (graded hat) and Gongbok (official costume)* (1th ed.). Seoul: Hwaseongsa.
- Lee, C. K. (2005). *Study on traditional Danryeong and modern Danryeo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E. J. (2005). Development process of Sibok and Sangbok for officer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5(6), 38-50.
- Lee, H. J. (2007). A stud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costume for the 『Giroyondo』 of 17-18th centu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7(5), 112-122.
- Moon, K. H. (2004). *A study on dress codes and actual Samples of 『Dan-ryung』 in the time of Chosun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 Nam, Y. J., Kim, S. Y., & Park, S. S. (2005). *The meaning of red-series color names in the clothing of Joseon Dynasty perio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Park, H. J. (2011). A study on arguments over the light pink color of official uniforms in the Joseon Dynasty (Part 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9), 1125-1137.
- Shin, B. J. (2010). 영조와 정조의 통치철학,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끌다 [The ruling ideology of King Yeongjo and Jeongjo led the Renaissance of the late Joseon]. In B. J. Shin (Ed.), *조선의 통치철학 [The ruling ideology of Joseon Dynasty]* (pp. 247-250). Seoul: Pureun Yeoksa.
- Son, K. J., & Kim, Y. S. (1982). *한국복식사자료선집 조선편 III [The selected sources of Korean historical costume: III]*

- The Joseon Dynasty III]. Seoul: Kyomunsa.
- Song, J. W. (2011).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ceremonies and the Compilation of Chungwantonggo in the Era of King Jeongjo. *Kyujanggak*, 38, 97-151.
- Yu, H. G. (1981). *한국복식문화사* [History of Korean clothing culture]. Seoul: Kyomunsa.
- 국역 증보문헌비고 [Jeungbo Munheon-bigo]. (2000).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Retrieved February 26 to 29, 2011, from <http://www.krpa.co.kr>
- 조선왕조실록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ranslated into the modern Korean]. (199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Retrieved January 16 to February 25, 2011, from <http://sillok.history.go.kr>